

목공예가, 최 병훈

Woodcraft Artist Choi, Byung-Hoon

태초의 형상에서 나의 조형으로

글/최 병훈

by Choi, Byung-Hoon



최 병훈은 1952년 강원도에서 태어났으며, 197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1979년 그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73년부터 국전에 출품을 해왔으며 1978년 현대공예창작회라는 단체의 창립 멤버로서 현대공예 운동에 참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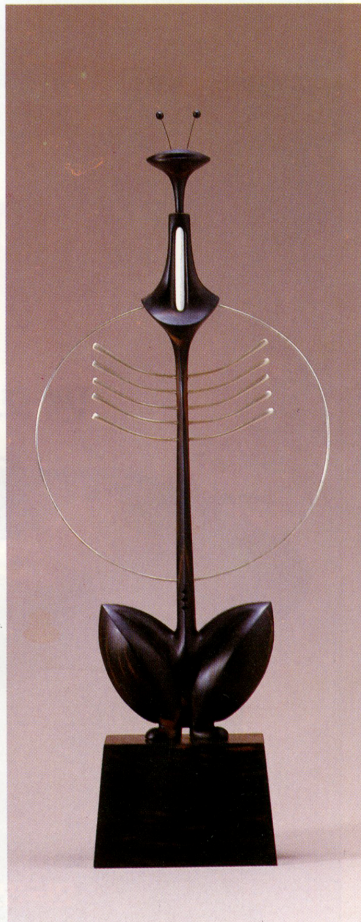
이후 한국현대공예가회, 홍림회 등에서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때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국제무역박람회 한국관을 다수 설계, 감리한 바 있다. 현재 경상남도 공예품 개발 지도교수이며, 경기대학교 응용미술과 조교수이다.

태 초에 원시인들에 의해 그들의 생활 도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공예의 행위는 있어 왔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까지 그 행위는 인간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원시인들에 의한 생활 도구의 제작 행위, 즉 공예 행위가 곧 오늘날의 미술 행위의 근원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으며,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피카소, 브라크를 비롯한

현대미술의 거장들도 원시미술(원시공예)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원시생활의 도구로서 만들어진 공예품이 인류학적 유물로서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미술 속의 원시미술로 다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제작 행위의 결과라기보다 인간의 원초적인 조형의식이 깊숙이 스며들어 어떤 사상이

‘채집된 곤충 8713’. 흑단, 은, 22×9×56cm, 1987



‘채집된 곤충 8612’. 흑단, 은, 38×10×41cm, 1986



‘채집된 곤충 8714’. 흑단, 은, 20×7×6.2cm,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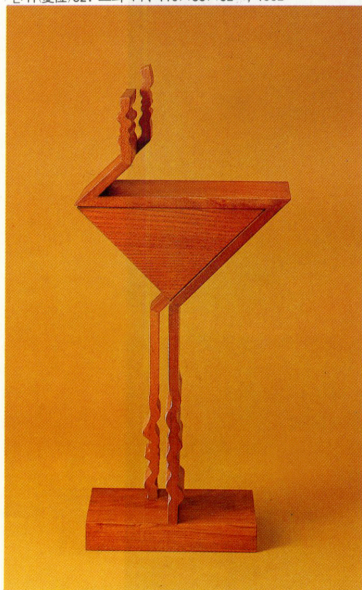


표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예가 그 시대 사상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시대의 생활 양식과 미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공예 또한 그 변화를 수용함은 물론 더 나아가 새로운 공예 철학을 만들어 가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고도의 과학 문명은 자연으로부터 괴리되어 가고 기계에 의해 획일화되어 가는 산업사회를 만들면서, 인간성 상실의 부정적인 측면과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오늘의 인류에게 동시에 안겨 주고 있다.

현대 사회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함은 오늘의 현대공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현대공예가 이 시대 정신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새로운 생활 철학과 예술

‘변위(變位) 82’. 느티나무, 110×33×32cm, 1982



‘채집된 곤충 8611’. 흑단, 은, 30×8.5×30cm, 1986

철학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오늘의 생활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의 작업은 시대정신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평생을 두고 추구해야 할 공예의 길이 어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까마는 이런 점을 기초로 수십년간 계속된 나의 작업은 이제 막 탐색기를 벗어나고 있다.

1983년부터 시작한 나의 ‘채집된 곤충’ 시리즈는 나의 작업에 있어 공예 용도의 새로운 해석과 자연에서의 미적 경험으로 얻어지는 새로운 형상성 추구가 하겠다. 나는 흑단과 장미목을 즐겨 사용하며,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나에게 있어 시골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은

아름다운 기억들로 점철되어 있다. 산으로 들로 호랑나비를 쫓아 곤충채집을 하러 다니던 일, 시냇가에서 가재잡이를 하던 기억들은 나의 최근 작업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저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곤충들로부터 생명의 신비로움을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의 오묘한 형상을 나는 그대로 작품에 옮기고 있다. 언제나 될 것 같은 힘차고 순발력 있어 보이는 가는 다리,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더듬이, 종이보다 얇은 날개의 신비스러운 보호색과 놀랄 만큼 정확한 대칭 형상. 어느 날 날카로운 핀에 의해 그들의 생명은 멈추게 되지만 그 신비로운 형상은 그대로 남아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게 된다.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진화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자연의 오묘한

‘채집된 곤충 8402’. 화류, 89×35×28cm, 1984





‘채집된 곤충 8405’. 흑단, 42×21×27cm, 1984

‘채집된 곤충 8508’. 장미목, 40×20×38cm, 1985



섬리는 나에게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금속을 사용하여 목재라는 재료가 갖는 형태와 용도에 있어서의 제약성을 일부 극복해내고 있다. 이는 재료의 한계성에 스스로 묶여 버리고마는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며, 나의 작업에 있어 이러한 재료의 확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지혜를 전해 주지만 인류는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거부한다. 공예의 역사 또한 그러하다. 현대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역사의 반복은 못한 후손들에게나 이어지는 것이며 이는 인류문화의 퇴보만을 가져올 뿐이다.

산업혁명 이후 고도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업디자인 분야가 새로이 생겨났고 그 분야의 역할과 공헌에 대하여 우리 모두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시대 정신의 변화와 공예 개념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한 세기에도 각기 다른 목소리의 예술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세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우리나라의 현대공예 분야 만큼은 그 인식에 있어 폐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다양성을 수용할 때 비로소 문화의 획일화, 사고의 획일화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오늘의 생활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나은 인간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지현)